

## 여름의 전통 행사 오봉에 관하여



일본에는 오봉이라는 문화가 있어, 그 역사는 일본의 아스카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의 전통 행사 중 하나인 오봉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 오봉이란 무엇인지?

오봉은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고 공양하기 위한 연중행사입니다. 일본의 예로부터의 조령(祖霊)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행사로, 이 기간에는 선조의 영혼이 일가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세계로 돌아온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 오봉의 기간 일반적으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봉의 행사 전통 행사는 지역과 불교 종파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행사가 열립니다.
- 무카에비(迎え火): 마중하는 불,8월 13일 저녁에 선조의 영혼이 길을잃지 않도록 집 앞에 불을 피웁니다. 초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쇼로다나(精霊棚)/본다나(盆棚): 선조를 위해 집에 장식장을 마련하여 과일이나 꽃 등 공물을 둡니다.
- ◆ 성묘: 오봉 기간에는 성묘를 하여 무덤을 깨끗하게 하고 공물을 바칩니다.
- 소 오쿠리비(送り火): 배웅하는 불,8월 16일 저녁에 문 앞이나 마당에서 불을 피우거나, 강이나 바다에 등롱을 흘려보내거나 하며 선조의 영혼을 배웅합니다.



또한, 오봉 기간에는 일본 각지에서 여러 행사와 축제가 열립니다. 교토의고잔오쿠리비(五山送り火)와 도쿠시마의 아와오도리(阿波踊り),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도로나가시(灯篭流し, 등롱을 물에 흘려보내는 행사) 등이유명하지만 미야자키에도 전통적으로 열리는 오봉 행사가 있습니다.

- 나가레칸조(流れ灌頂): 매년 8월 18일에 노베오카시 오세가와강 부지에서 열리는 도로나가시. 일반 참가 가능.
- ・ 미미쓰의 쇼로나가시(精霊流し):8월 16일에 미미쓰항에서 어선이 등롱을 휴가나다에 흘려보내는 행사. 일반 참가 가능.

이번 여름 오봉만의 이벤트를 즐기며 일본 전통을 접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0985-41-5901 FAX: 0985-41-5902 Email: support@mif.or.jp